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에

시민 53% "세금 더 낼 의향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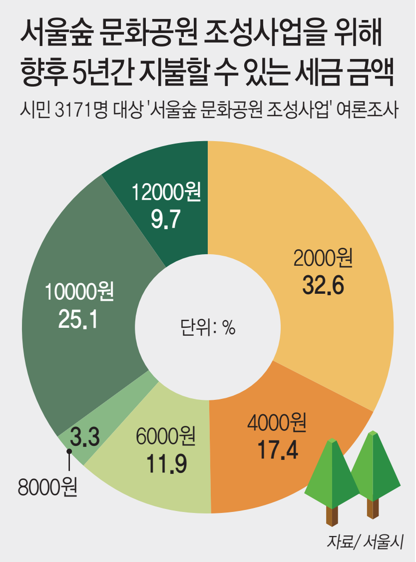
서울시, 3171명 대상 여론조사
낼수있는 최대액 33% '2000원'
이어 1만원 25%, 4000원 17%

서울시민의 절반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4월 20~21일 시민 3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사업' 여론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현재 시는 삼표레미콘 성수공장 부지에 서울숲 문화공원을 만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가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매년 세금을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더니 52.5%가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47.5%는 '없다'고 밝혔다.

긍정 답변을 한 응답자에게 '낼 수 있는 세금의 최대 금액이 얼마냐'고 질문한 결과 2000원이 3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1만원(25.1%), 4000원(17.4%), 6000원(11.9%), 1만2000원(9.7%), 8000원(3.3%) 순이었다. 이들



중 71.1%는 '앞서 선택한 금액의 2배를 더 낼수도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28.9%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했다.

서울숲 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위해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겠다고 한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건립해야 한다'(32.3%)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지불할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다'(22.7%), '유사한 시설들이 이미 충분히 많다'(11.6%), '이 사업은 우선순위에 둘 만큼 중요하지 않다'(8.4%), '해당 사업은 내 관심 대상이 아니다'(5.6%)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 '서울시가 이미 이 분야에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4.8%), '서울시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지 믿을 수 없다'(3.0%), '판단할 만한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았다'(2.7%)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시민 10명 중 9명(94.4%)은 최근 1년 동안 공원에 가본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에서 공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20분 이내'가 41.2%로 가장 많았다. 20~40분(38.3%), 40~60분(16.0%), 60~90분(3.1%), 90분 이상(1.3%)이 그 다음이었다.

시민들이 방문 공원 선택 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접근성'(44.6%)이었다. 이어 자연경관(32.8%), 공원 내 문화·편의시설(21.8%)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도시 공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민에 휴식공간 제공'(65.2%)을 꼽았다. 서울시 자연환경의 보전(13.5%), 시민에 여가·놀이공간 공급(11.7%), 문화·체육 공간 제공(9.2%)이 뒤를 이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시민 71% "무임비용 정부서 보전해야"

교통공사, 지하철 무임승차 여론조사

지하철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벌인 '공익서비스 국비지원 법제화' 여론조사 결과를 3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 중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어느 정도', '잘', '매우 잘' 안다고 답한 806명이 꼽은 이상적 비용 부담 유형은 '국가 100%'가 23.9%, '국가 50% + 지자체 50%'가 46.8%로, 둘을 합하면 70.7%에 달했다.

'지자체 100%'는 17.0%, '지자체 50% + 운영기관 50%'는 10.3%였고, 현행 제도인 '운영기관 100%'(코레일은 예외)는 2.0%뿐이었다.

현행 제도에 따른 도시철도 무임승차 비용 부담 주체를 묻는 문항에 '운영기관'이라고 답한 비율은 40.7%였고, '국가'(30.4%), '지자체'(24.8%), '무임대상자 외 다른 시민들'(1.7%)이 뒤를 이었다.

현행 제도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필요한 비용은 운영기관이 전액 부담한다. 다만 도시철도가 아닌 한국철도(코레일)의 경우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국가로부터 60%가량의 비용을 보전받고 있다.

전체 응답자 1000명에게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는 '무임수송(노인, 장애인, 유공자 등)'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어 '운영기관의 비효율적인 경영' 17.1%, '대외환경변화(코로나19, 대체수송수단 등장 등)' 14.4%, '원가에 못 미치는운임' 11.7%. '이용요금할인(어린이, 정기권, 환승 등)' 9.0% 순이었다.

/김현정 기자

고양시 "서삼릉 태실권역 해설 들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서삼릉 태실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이야기를 들으며 문화재 나들이 하세요"

고양시는 그간 비공개였던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태실 권역의 개방에 맞춰 비공개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해 해설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고양 서삼릉 태실은 조선 왕실에서 태반과 탯줄을 봉안한 석실로 태조 이성계부터 세종대왕, 마지막 순종 황제까지 왕과 황제, 왕실 가족들의 태실 54기가 모여 있는 곳으로, 지난 10월 16일 시민들에게 첫 공개된 이후 많은 방문객이 찾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서삼릉 태실 권역의 방문객에게 정확하고 유익한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시 향토연구사와 서삼릉복원추진위원회와 협력해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추가 인원을 투입해 1주당 3명의 해설사를 현장에 순환 배치하고 있다.

해설사 활동모습.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시티투어버스 타고 과거로 여행 떠나요"

서울시 '2020 메모리즈 인 서울'
역사소개·문화공연 결합 무료투어
'도심고궁남산' 등 3개 코스로 운영

서울시는 4~20일 역사 소개와 문화예술 공연을 결합한 무료 버스 투어 '2020 메모리즈 인 서울'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이라는 테마로 3개 코스를 운영한다.

'도심고궁남산' 코스는 광화문 - 덕수궁 - 남대문시장 - 서울역 - 전쟁기념관 - 이태원 - N서울타워 - 남산골한옥마을 - 동대문디자DDP - 창덕궁 - 인사동 - 청와대앞 - 경복궁 - 세종문화회관으로 이어지며, 이름 없는 일제강점기 독립투사의 이야기를 연극과 공연으로 전달한다.

시티투어버스 포스터. /서울시

'전통문화' 코스는 DDP - 시청 - 청와대 - 통인시장 - 세종문화회관 - 서울역 - 남대문시장 - 남산오르미 - 명동 - 종각 - 인사동 - 종묘 - 광장시장을 거치며 그 시절 버스 여차장과 시간여행자가 1960년대 '레트로 감성'을 퍼포먼스로 전한다.

'평화의 길' 코스는 서울시티투어버스 정류장(광화문 또는 DDP)에서 출발해 되돌아오는 것으로, 전쟁기념관 - 심학산두부마을 - 임진각 - DMZ 투어(DMZ 셔틀버스 이용)로 구성된다.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가치를 느끼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이달 15일까지 에스에이치네스크투어 홈페이지에서 '서울, 버스, 여행'에 대한 자신만의 사연을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첨을 통해 최종 탑승자를 선정하되 여행취약계층은 우대키로 했다. 출발 시각은 매주 수·금요일 오후 1시 30분,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2시다.

/김현정 기자

안성시,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안성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평택지사와 함께 수해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마케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캐리커처 체험, 홍보물품 제공, 이동차량 홍보, 비대면 경품행사 등 각종 이벤트를 펼친다.

수해피해 전통시장의 마케팅 지원은 지난 2일부터 오는 7일까지 죽산시장에서 진행되며,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는 일죽시장에서 실시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수해피해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고자 대형TV, 청소기, 전기그릴 등의 경품과, 물티슈, 손소독제, 마스크 등의 홍보물품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시민들이 동참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이보헌 기자 bhlee7777@

서울시, 금융산업 발전 머리 맞댄다

오늘부터 3일간 '2020 금융위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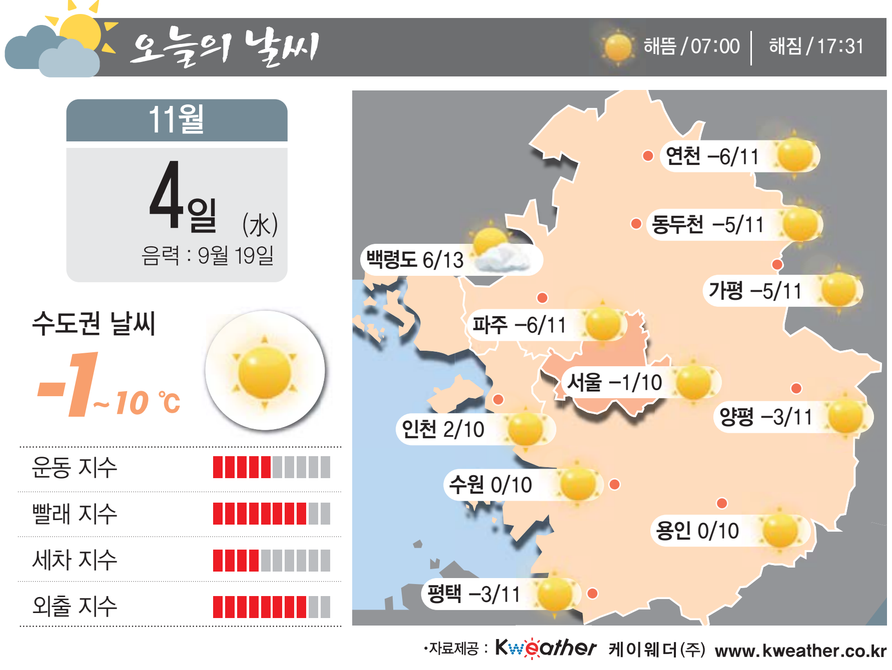
서울시는 4~6일 금융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여의도 일대에서 '2020 서울금융위크&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첫날은 금융·핀테크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하는 '지식재산 컴피티션'이 진행된다. 현장 심사로 4개 기업을 선정해 총 3200만원 상당의 특허 바우처를 지원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강금석·백용욱 교수가 일반 시민 눈높이에서 디지털 금융을 소개하는 온라인 강좌도 펼쳐진다. 둘째 날은 콘래드호텔에서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가 운영된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와 '미래 대예측' 저자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자크 아탈리가 '포스트 코로나와 디지털 금융혁신'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폴 앤드루스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 사무총장 등 여러 나라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날은 서울핀테크랩 확대 개관식이 열린다. 서울핀테크랩은 최근 위워크 여의도역점 내 사용공간을 늘리면서 상주 가능한 인원이 600명에서 1000명으로 늘어났다.

/김현정 기자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 포스터. /서울시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